

기도회 5일차 - 순종하는 삶과 기도

주제성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심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7)고 선포합니다.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 “두려워하며”라는 단어는 존경과 경외 또는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태도와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지혜자는 이와 같은 태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14).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도 그 소원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롬 7:15). 바울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롬 7장의 마지막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질문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4, 25).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 회개했다가도 다시 무너지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엘렌 화잇이 1897년에 쓴 한 기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저항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유혹의 투쟁에서 영혼의 원수를 승리하신 그분은, 인류에 대한 사단의 능력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단을 정복하셨다. 승리자로서 그분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는 노력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과 연합시키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공로와 연합시키도록 그분의 승리의 유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강력한 유혹 아래 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능력에 의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된다.” (3증언, 480).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요일 5:14-15

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으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경건한 삶을 위한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곧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시간 (30~45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14)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아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지만, 너무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성정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신실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삶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는 아무 것도 숨기울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께서는 저의 마음을 아시며, 저의 앓고 일어섬을 익히 아십니다. 또한 주님은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의 느낌과 상관없이, 저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가 기도 제목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함

자백: 약 몇 분 동안 개인적인 회개와 자백의 시간을 가지며,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

인도하심: 현재의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

교회: 지역교회와 국가 및 세계교회를 위한 기도 (미리 기도제목 나눠주기)

이웃과 지역사회: 교우들과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경청과 반응: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

추천 찬미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530장 주여 옛날 예복같이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84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5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493장 일 골몰할 때도

-428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